

'결로와 전쟁' 나주 빛가람 중흥아파트

'드레스룸' 발생 최다...일부 가구 하자보수 한계 드러내 입주민 편의 고려치 않는 사후관리(AS)처리도 불만 한몫

중흥건설이 '명품' 주거 단지로 조성한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 내 공급 아파트에서 겨울철 '결로(結露·이슬 맺힘)' 현상에 따른 민원이 증가하는 등 주민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16일 나주시에 따르면 중흥건설이 나주혁신도시에 공급한 아파트는 1차 993가구, 2차 721가구, 3차 698가구 등 총 2412가구다.

문제는 2016년 9월부터 입주자가 시작된 이후 매년 겨울철이면 일부 입주민들이 결로에 시달리며 품질을 앓고 있다.

이 아파트 입주민들의 소통 공간인 '중흥S클래스 모바일 앱' 게시판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안방과 연결된 '드레스룸(옷방)' 결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한 공공기관 종사자는 "드레스룸 결로 현상으로 곰팡이가 피고 냄새가 심해서 오래된 옷을 사용한 하자보수를 받았지만 개선되지 않아 공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입주 초기부터 여러 가구에서 결로 발생 민원이 제기돼 왔지만 그때마다 중흥건설 하자접수센터 측에서는 "아파트 단열이 잘돼 외부와 온도차이가 커서 발생하는 문제"라며 "환기만 잘 시키면 된다"고 민원을 일축하기도 했다.

하지만 입주민 A씨는 "드레스룸에서 결로가 심해 한겨울에도 창문을 열고 환기를 가장 12시간까지 했지만 벽면에서 물방울이 맺히고 커튼 밖에서는 곰팡이가 득실득실 피어 보관 중이던 옷을 망치기까지 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후 잦아들지 않는 A씨가 하자 보수를 불러 드레스룸 커튼박스과 천장을 뜯어 본 결과 목재는 썩어서 곰팡이가 피어 있고 천정과 창틀 연결 부분은 성인 주먹이 들어갈 정도의 구멍이 뚫려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발견된 구멍은 단열 시공 마감이 부실하게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단열이 잘 돼서 결로가 생긴다는 중흥건설 측 주장과는 상반되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결로 민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일부 가구에서는 벽면 전기콘센트와 안테나 접속단자에서 물방울이 맺어 새어 나오고 현관 초인종 카메라 안에도 물방울이 맺혀 외부 방문객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있다.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결로 문제'만큼은 집단 하자보수 소송을 통해서라도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거북이 걸음을 걷는 하자보수 처리와 약속 시간도 잡지 않고 아무 때나 불쑥불쑥 찾아오는 애프터서비스 직원들도 입주민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일부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소송 한 주장과 흡집과 창문 살리폰 시공 누락 마무리 빠진 소리, 화장실 조경등 안전기 고장 등의 하자보수를 받는데 접수 후 한달 보름에

서 최장 두 달이 걸렸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하자보수 업체들의 '갑질'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중흥건설 콜센터에 하자를 접수하면 언제 방문할지 기약할 수 없는 가운데 직장에서 한 참 일하는 시간에 업체로부터 연락이와 5분 후에 방문할 테니 집에서 대기해 달라는 요청을 받는 경우가 빈번하다.

입주민 B씨는 "최소 하루 전에 방문 연락을 해주어야 직장에 양해를 구하고 집에서 대기 할 수 있는데, 방문 10분 전에 연락을 하면 어떻게

업무를 멈추고 갈 수 있겠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부분을 하자보수 업체 직원에게 항의했다니 그립 애프터서비스 받지 않을 것"이라며 "갑질 아닌 갑질을 경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중흥건설 하자보수 팀 관계자는 "드레스룸 결로 부분은 단열 시공이 잘 돼서 겨울철 일부 가구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안다. 단열 시공이 잘된 아파트의 경우 외부와 온도차이가 크게 벌어지면서 결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환기를 잘 시켜 줘야 한다"고 말한 뒤 "하자보수 업체 직원들의 불친절 부분은 교육 강화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스



드론 배워요 KT가 16일 신안군 입자도에 'KT 기가 아일랜드 드론 교육장'을 열었다. KT 드론 교육장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이론, 조종 실습은 물론 향후 드론 자격 검정 및 농사용 드론 임대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서 잇단 담뱃불 부주의 화재 "주의 요망"

최근 광주에서 담뱃불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잇따라 흡연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에서 모두 923건의 화재가 발생해 36명의 인명피해와 33억7500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원인별로는 부주의 541건(58.6%)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담배꽂초 방치가 36.5%(198건)를 차지했다.

실제 지난 15일 오후 4시15분께 광주 북구 모 원룸 A(49)씨의 집에서 담뱃불 취급 부주의로 추정되는 불이 나 119에 의해 35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얼굴과 손에 2도 화상을 입은 A씨가 병원 치료 중이며 원룸

15㎡가 타 소방서 추산 12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은 "술을 마신 뒤 담배를 피우고 잠이 들었다"는 A씨 진술로 미뤄 침대 주변에서 발화된 것으로 보고 실화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오후 3시18분께 광주 북구 3층 규모 건물 적재함에 서도 담뱃불로 인한 화재가 발생, 외벽 일부가 그을리는 등 182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지난달 31일 오전 2시26분께에는 북구 두암동 B(23·여)씨의 집에서 불이 나 작은방에 있던 네 살과 두 살 아들, 15개월된 딸이 숨졌다.

B씨는 작은방 입구쪽에 놓인 이불에 담뱃불을 비벼 꺼 불이 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담배꽂초로 인한 화재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인화성이 강한 물질이 있는 장소나 실내에서는 금연해야 한다.

광주 북부소방서 관계자는 "건물 옥상에서 또는 운전 중에 무심코 던진 담배꽂초가 화물차 적재함 화재·산불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고, 쓰레기통에 버린 꽂초의 불이 인화물질에 옮겨붙은 화재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주의를 기울이면 화재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 한 뒤 담배꽂초를 재떨이에 버리고, 담뱃불이 제대로 꺼졌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은홍 기자

지하실 방치한 그림 알고보니 렘브란트 작품

미국 뉴저지주의 한 주택 지하실에 방치돼 있던 먼지 투성이 그림이 알고보니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의 작품인 것으로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 영국 데일리 메일 등에 따르면 뉴저지에 살고 있는 랜도 형제는 자택 지하실 탁구대 밑에 놓여 있던 그림이 렘브란트 작품이라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이들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집을 청소하고 재산을 처분해 현금화 하는 과정에서 작품을 찾아냈다. 은색 채색과 오래된 탁구대 밑에 항상 있던 그 그림은 오랫동안 그들이 보았던 것이기에 친숙했지만 마음에 들지는 않았다고 한다.

형제는 경매시장에 이 그림을 800달러(약 85만원)에 내렸으나, 렘브란트 작품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100만 달러(약 10억6000만원)에 팔렸다. 이후 구매자는 보정 작업을 거쳐 결국 40만 달러(약 42억5000만원)에 다시 팔렸다.

이 작품은 렘브란트가 10대였던 1624~1625년 사이에 그린 것으로 알려졌다. 뉴저지에 살던 랜도 일가는 지난 1930년대 해당 작품을 구매했지만, 누구도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작품은 인간의 오감을 그림으로 묘사한 렘브란트 시리즈 중 '냄새(Smell)'에 해당한다.

랜도 형제가 이 작품을 800달러에 경매에 내놓았을 당시 작자 미상의 19세기 회화로 판단됐었다.

美부부, 자녀 13명 쇠사슬로 묶어 감금

미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카운티 경찰이 자녀 13명을 쇠사슬로 묶어 감금한 부모를 학대 등 9가지 혐의로 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뉴욕 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미국 사회는 이 같은 소식에 충격에 빠졌다.

경찰은 이날 13명의 형제들 중 감금됐던 집에서 탈출한 17살 딸로부터 형제들이 집 안에 갇혀 있다는 911 신고 전화를 받고 페리스의 집으로 출동해 쇠사슬로 묶여 갇힌 채 굶주린 12명의 형제들을 발견하고 이들이 부모 데이비드 앨런 터핀(57)과 부인 루이제 에나 터핀(49) 부부를 체포했다.

이들은 모두 굶주려 쇠약한 상태였으며 쇠사슬로 침대 등에 묶여 있었다. 이들이 감금됐던 곳은 더럽고 악취가 풍겼으며 제대로 먹지 못해 쇠약하고 영양실조처럼 보였다고 경찰은 말했다.

13명의 피해자들은 가장 어린 2살부터 29살까지이며 이 중 7명은 성인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경찰은 피해자들이 너무 쇠약하고 체구가 작아 나이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며 확인을 거부했다. 실제로 91에 신고 전화를 한 소녀도 자신은 17살이라고 말했지만 보기에는 10살밖에 안 돼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감금돼 있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이들은 병원으로 보내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이들의 상태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들의 부모인 터핀 부부는 왜 아이들을 이처럼 감금했는지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황실수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고문 학대, 아이들을 위험에 빠트린 죄 등 모두 9가지 혐의로 체포됐다. 부부에게는 각각 900만 달러(96억7000만원)의 보석금이 책정돼 수감됐다.

데이비드 터핀은 사립학교 운영 허가를 받아 페리스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샌드캐슬 데이 스쿨'이란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6학년부터 12학년(한국의 고등학교 3학년)까지 6명의 학생들이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벨기에서 빌딩폭발...3채 무너져 20명 부상

벨기에의 안트워프 시내에 있는 한 빌딩에서 15일(현지시간) 폭발이 일어나 이 건물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곁에 있던 두 채의 건물도 심하게 파괴되었다고 경찰이 밝혔다.

현지 소방대는 폭발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은 사람은 4명이었지만 일부 부상자들은 자기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졌거나 구급차에 실려 입원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안트워프 경찰은 트위터에 "시내 파르메마르크트의 폭발 희생자는 10~20명일 것 같다"고 올렸다.

민방위대 구조대가 폭발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혹시 건물 잔해 밑에 있을지도 모르는 피해자들을 구출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현지 매스컴은 보도했다.

이제 폭발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안트워프 경찰은 트위터를 통해 이번 폭발은 어느 모로 보나 테러와는 관계가 없다고 발표했다.

국민 건강관리 3.0

다들, 안녕하시죠?

우리 남편은요...
양치로 죽어 있습니다.

다들 건강검진으로 조기발견해서 수술도 받고,
아직 3개월에 한 번 검사만 받으면 될 거라고
가벼워졌습니다.

독이커 보면
놓치고 지내, 그래서 잇고 지내 시작등을 반성하게 됩니다.

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다들 안녕하시죠?

영양안전검진 중 자체조사할 때,
자율치료 중인 민혁군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구강
검진

영양
건강검진

암
검진

발생률이 높고 조기진단으로 치료할 수 있는 5대 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합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간이 혼잡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h-well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